

# 원전건설과 국민홍보는 바늘과 실의 관계

항상규씨에게 붙이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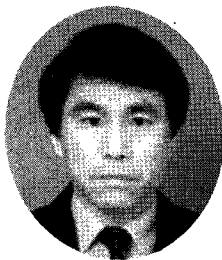
이 글은 공추연사무국장 항상규씨가 “샘이깊은 물” 9월호에 발표한 “원전홍보에 거짓말 없나?”를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다. 본래의 뜻은 “샘이깊은물”을 통해 이 글을 발표할 생각이었으나 그쪽 사정에 따라 부득이 황씨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샘이깊은물” 8월호와 9월호에 실린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연) 항상규씨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생각대로라면 “샘이깊은물”을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으나 잡지의 성격상 원전 추진쪽의 글을 실기가 어렵다는 편집자의 말에 따라 부득이 서신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황씨는 여러 각도로 원자력사업의 허와 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더러는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홍보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샘이깊은물” 9월호에서 황씨는 저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를 비롯해서 원전사업자의 대국민이해활동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홍보란 원래 시행자의 입장에서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해 여러가지 매체를 동원하기도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에 기업체에서는 단 한가지 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수십억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관련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전PA(Public Acceptance)는 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이 아니라 전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



유 각 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해 국가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이는 PA는 상업적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홍보”라는 차원이 아니라 원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의 속성상 단점보다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만큼 개인적 또는 단체의 성격상 반대와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산이나 한전이 마치 국민을 속이고 있는 듯이 독자를 현혹하는 것은 인쇄매체를 통한 반대자의 횡포가 아닐까요?

어차피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을 경시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을 위해 원전이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 원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매년 수억의 홍보비보다 몇십배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해시키는 활동이 원전을 시작하던 초기단계부터 병행했다라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어두웠던 한시대의 폐단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전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좀더 소신있게 전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느냐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90년대에 이르면 전력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의 연구를 통해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나빠진 국민의 여론에 밀려 전원개발사업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력예비율이 높았

던 것은 사실이나 전력설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1인당 연간 전기사용량이 약 2,000kWh로서 선진국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의 약 3배, 미국은 우리보다 약 10배를 더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사용을 아무리 억제한다하더라도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기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가려면 발전소도 세워야하고 폐기물도 처분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마을에는 공장하나도 세울 수 없다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인정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는 안된다는 모순속에 모두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공추연만이라도 이러한 여러가지 약조건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전관계자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사업은 한전 사장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저희 원산을 위한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추연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우리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은 같으되 시각이 다르고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애국자이고, 원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반민족주의자나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이 원전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하는 것이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추연의 노선과 우리의 노선이 항상 평행선만을 달리는 것 같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다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리라 믿어집니다. 현재 관계는 우리는 생선을 잡고, 공추연과 같은 환경단체는 생선이 썩지 않게 소금을 뿌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즉 필요악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추연을 재야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의 집단쯤으로 비하하거나 원전관계자들을 마치 국민을 팔아먹는 매국노쯤으로 치부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전이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원전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전건설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이해 활동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활동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도, 우롱하는 것도 아니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우리의 노력일뿐입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한전에서 심야 전력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낮시간의 전기를 밤중에 쓰도록함으로써 전력수급의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혹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력 소비의 증대는 계속적인 발전소건설을 동반해야 한다고 볼때, 에너지 절약에 대해 공추연과 같은 단체들이 활발한 소비절약운동을 벌이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한개의 발전소라도 적게 건설하는 결과가 되어, 공해의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